

# 여야 “5·18 법안 제정” 한 목소리…호남 구애 경쟁

### 광주 찾은 이낙연 5월 3단체 만나고 5·18묘지 참배 광폭행보 국민의힘 김종인 무릎사과 이어 내일 광주서 예산정책 협의회

여야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등 '5·18관련 법안'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며 호남 구애 경쟁에 돌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의 '무릎 사과'와 당 지도부의 5월 단체 만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4일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광폭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비롯한 최근 국민의힘의 호남 구애와 '서진(西進)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대표 취임 이후 24일 광주를 처음 방문한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월 관련 단체, 이용섭 광주시장, 종교·노동 단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방문에서 '5·18 관련 법안'을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5월 단체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5·18 왜곡 처벌법과 진상조사 특별법은 26일 국감이 끝난 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5월 단체의 공법단체 법안과 5·18 유

족 보상법 등은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쉽게 국회를 통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도 최근 광주를 찾아 5월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5·18 관련 3법'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만간 5월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 대표와의 간담회에는 5·18유족회와 5·18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3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5월 관련 법안 조속 국회 통과 요구와 함께 아시아문화전당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과 국립 5·18민주묘지 운영에 관한 요구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직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관리하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을 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5월 단체들의 주장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립 5·18민주묘지의 확장을 요구하는 단체의 목소리에는 보존성과 함께 논의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오는 27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이 또 한 번 광주를 찾는다. 이들은 광주에서 광주시와 전

남도, 전북도와 함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호남 광역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정책 지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등이 참석해 국회 예산 반영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정책지원 건의 등 주요 사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광주시는 ▲친환경 공기산업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광주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국립 광주국악원 건립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심혈뇌혈관센터 설치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국비 추가 지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광주 방문은 지난 8월 10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처음으로 찾은 데 이어 5번째 공식적인 호남 방문이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5·18 민주영령과 광주 시민에게 사과한 데 이어 5월 단체 간담회 등을 갖는 등 호남 구애를 이어가고 있어 내년도 지역 국비 반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권일 기자 cki@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4일 광주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몸풀기 들어간 정세균 사람들...양강구도 흔들까

### 측근 그룹 'SK계' 추측 의원 모임 '광화문포럼' 시동 유력 주자 이낙연계 측각



수 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장과 민주당 대표, 국회의장 등을 거치며 탄탄한 당내 기반을 쌓은 정 총리 주변에서 조직화 움직임을 보이는 자체가 대권 모드에 불이 켜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 총리 측은 이런 움직임에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정 총리는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에 전념하겠다는 생각 뿐"이라며 "정 총리 본인과 관계없는 자발적 움직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 본인은 향후 행보에 말을 아끼며 국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그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3월 전후에 총리직을 단절시킬 것인 관측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정 총리는 앞으로 전국을 돌며 중앙재난대책본

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거나 규제혁신 등 경제 행보에 주력하며 국정 존재감을 킬을 방침이다.

정 총리 측의 이런 행보에 대해선 이 대표 측도 주시하는 모습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이 대표가 정 총리를 훨씬 앞지르며, 정 총리가 준비운동을 마치고 실제 '링' 위에 오르면 파급력이 작지 않을 수 있던 생각에서다.

당내 경선 판이 펼쳐지면 이 대표로서는 지역 기반이나 이미지가 비슷한 정 총리가 현재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주는 상대가 될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이 대표는 전남 영광, 정 총리는 전북 진안 출신으로 호남 지역 기반이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총리를 지낸 데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도 겹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와 공통점도 없고 각각을 지지하는 층의 성향도 뚜렷이 갈리는 이 지사와 달리 정 총리는 경선 후보로 함께 나온다면 이 대표 지지 표가 일부 분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대표, 이용섭 시장 만나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이 대표를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국립 5·18 민주묘지 제2 묘역 침수 대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대표에게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니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다"며 "특별법 개정과 국방부 역할 강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주시민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전남(군공항) 이전 지역에는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광주·전남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국립 5·18 민주묘지 2묘

역 침수 정비 및 확장사업도 하루 빨리 용역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 국회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생형 지역 일자리 1호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공장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과 이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빛그린산단 조성 당시 각각 광주 광산구장과 합평 국회의원으로 협력했던 인연이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형석 의원 "광주 순환도로 협상, 맥쿼리 측도 재수사해야"

경찰이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을 수사하면서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25일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김모(55)씨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난

23일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운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

뤄지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강도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경찰청은 김씨와 김씨 동생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며 "맥쿼리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의료광고심의제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빵암공원 앞 위치